

2014. 9.

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목 차

contents



I . 연수개요 1~3

- ① 연수목적
- ② 연수현황
- ③ 연수내용
- ④ 연수자 명단
- ⑤ 주요 연수일정

II . 일본현황 4~9

- ① 일반현황
- ② 정치·경제·사회동향

III .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10~25

- ① 주요 연수내용
- ② 시사점
- ③ 연수성과

IV . 연수후기 26~28

I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농촌과 농업과 농민이 모두 즐거운 삼락농정(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 실현을 위해 선진화된 친환경 농업분야 벤치마킹을 통하여 농도인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
- 자매결연 의회를 현지 방문하여 체험 및 습득한 전문지식으로 도정 주요시책의 발전적 정책마련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제고

2 연수현황

- 기 간 : 2014. 8. 26(화) ~ 8. 30(토) / 4박 5일
- 연 수 국 : 일본
- 연수대상 : 12명(의원 7, 의원보좌 3, 정책연구 2)
 - 의 원(7) : 산업경제위원 7명
 - 의원보좌(3)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3명
 - 정책연구(2) : 정책연구팀 2명

3 연수내용

- 우리 도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시카와현의회를 방문하여 민선 자치시대의 의정활동 비교분석 및 우수 운영사례 수집
-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명소를 찾아 지산지소의 현장을 체험 및 사례 수집
- KOTRA 나고야무역관을 방문 우리 도의 상품에 대한 진출 가능품목 타진 및 전망 파악

4 연수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영 문)	비 고 (성 별)
계			12명	
의 원 (7명)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7명)	위 원 장	강 병 진 (GANG BYEONG JIN)	남
		부위원장	이 호 근 (YI HO GEN)	〃
		위 원	김 대 중 (KIM DAE JUNG)	〃
		〃	김 현 철 (KIM HYUN CHUL)	〃
		〃	양 용 호 (YANG YONG HO)	〃
		〃	이 학 수 (LEE HAK SOO)	〃
		〃	최 진 호 (CHOI JIN HO)	〃
의원보좌 (3명)	산 업 경 제 전문위원실 (3명)	전문위원	하 성 용 (HA SEONG YONG)	〃
		직 원	윤 재 준 (YOON JAE JUN)	〃
		〃	조 형 식 (JO HYEONG SIK)	〃
정책연구 (2명)	정 책 연 구 팀 (2명)	정책연구 3 팀 장	임 영 오 (IM YOUNG O)	〃
		직 원	배 홍 균 (BAE HONG GYU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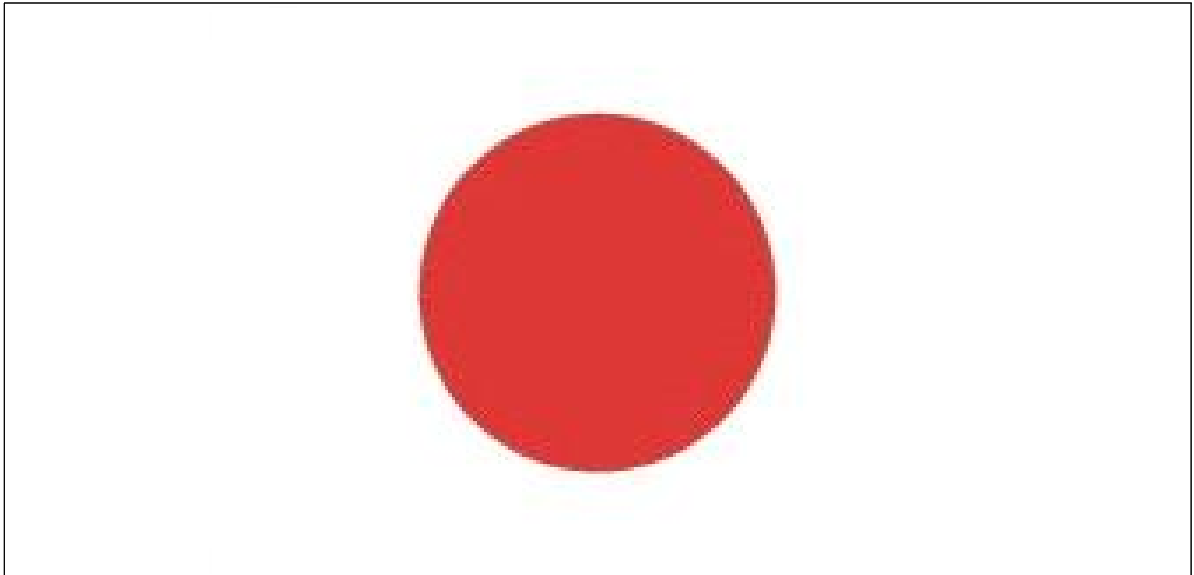
5 주요 연수일정

일 자	연 수 지 역	주 요 일 정	비 고
8.26(화)	출 발	○ 인천 국제공항 출발	
8.27(수)	카나자와시 →난 토 시	○ 이시카와현의회 방문 ○ 사카타니농장 방문	
8.28(목)	아즈미노시	○ 대왕 와사비농원 방문	
8.29(금)	나고야시	○ KOTRANA고야무역관 방문	
8.30(토)	이 가 시 →도 착	○ 모쿠모쿠농장 견학 ○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일본현황

1 일반현황



일본은 아시아의 동북쪽,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전체 면적은 남한 면적의 3.8배이고, 한반도 전체보다 1.7배 넓은 38만km²이며, 세계에서 60번째로 넓은 국가임

2010년 기준으로 인구는 1억 2805만 6026명으로 세계 10위에 해당하며, 행정구역은 1도[都 : 도쿄도(東京都)], 1도[道 : 홋카이도(北海道)], 2부[府 : 오사카부(大阪府), 교토부(京都府)], 43현[縣]의 총 47개로 나뉘어 있으며, 수도는 도쿄(東京)임

종교는 신도(神道), 불교, 기독교이고, 입헌군주제 국가로, 정부는 내각책임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의회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양원제이며, 화폐 단위는 엔(円)을 사용,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5조 3909억 달러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임

② 정치 · 경제 · 사회동향

1. 정치동향

가. 일본의 정치체제

입법권이 국회(헌법41조)에, 행정권은 내각(65조)에, 사법권은 재판소(76조1항)에 속해 있는 삼권분립 체제로 이 중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의원 내각제를 취하여 삼권의 견제 및 균형을 유지함

○ 행정부

- 일반적으로 국가 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 행정 기관」이라고 정하는 곳을 가리키며,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 과학성, 후생 노동성, 농림 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 공안 위원회(경찰청)의 1부 12개청이 있고, 나라의 행정 기관은 원칙으로서 내각에 속하고 있지만, 회계 감사원은 내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의 행정 기관임
-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67조), 영국에서는 하원 제1당의 당수가 그대로 수상이 되지만, 일본에서는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이 영국과의 차이점이며, 수상이 직접 국무대신을 임명하며,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68조). 영국에서는 모든 대신이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일본에서는 국회에 의석이 없는 대신도 존재. 하지만 내각이 하원(일본의 중의원)에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직을 하거나 또는 이에 대항하여 국민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하원을 해산할 수 있음(69조). 이러한 점에서 보면 영국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내각의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 66조)

○ 입법부

- 국회는 양원제(중의원, 참의원)를 취하고 있으나(42조), 이는 심의를 신중히 하여 중의원에 의한 지나친 움직임은 참의원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도 의결권을 가지나, 서로 다른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의원에 의한 의결이 우선시 되고, 양원은 원칙적으로는 대등하다고 되어있으나 많은 점에 있어서 중의원의 우위가 인정됨

○ 사법부

- 일본국 헌법 76조 1항에서 사법권의 귀속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소속하며, 2항에서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해 행정기관은 최후심리로서 재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
- 또한 행정 기관에 의한 최후심리재판은 금지(제76조 2항). 다만, 행정기관이 재판을 실시하는 제도가 설치되었다 해도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에 대해 76조 1항에 근거를 두는 재판소에 소송해 싸우는 것이 허락된다면 위헌은 아님

나. 일본의 정당체제

일본의 정당제는 55년 체제하에 오랫동안 자민당이 여당으로 계속 집권해 온 것이 특징. 55년 체제는 전형적인 일당 우위제의 상황으로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끝난 1993년 이후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온건한 다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병한 2003년 이후, 조건에서 보면 2대 정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음

○ 자유민주당(자민당)

- 1955년에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이 보수 합동해 결성.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결성된 일본 자유당과 일본 진보당과 일본 협동당의 유파를 이어받아 전쟁 전의 2대정당인 입헌 정우회와 입헌 민정당이 유파를 이어받음
- 자민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회 정치 아래, 특정의 계급 대표가 아닌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위에 행동하는 국민 정당으로 일본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시대에 맞지 않게 된 것은 고치는 보수 정당을 표방
- 자민당은 다수의 정치가를 배출해 역대 총리대신으로는 비 자민연립정권으로 호소카와 모리히로·하타 츠토무·하토야마 유키오, 전민주당대표의 오카다 카츠야, 오자와 이치로 등도 자민당 출신임

○ 민주당

- 1998년 4월, 원내회파 「민주 우애 태양 국민 연합」(민우련)에 참가했던 구민주당·민정당·신당우애·민주개혁연합이 합류해 결성되어 1998년에 구민주당이 각 당을 흡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어 1996년 결성된 구민주당의 존속으로 2003년 9월에는 오자와 이치로가 인솔하는 자유당이 합류했으나, 2012년 7월 오자와는 민주당에서 제적되어 지지하는 의원과 함께 신당인 「국민의 생활이 제일」을 시작함
- 자민당은 1955년의 결당 이래 47도도부현에서 국정선거 선거구 공인후보 당선을 경험했으나, 민주당은 1998년의 결당 이래 아직까지 후쿠이현·시마네현·미야자키현 3현에서 국정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함

2. 경제동향

- 신정권의 적극적인 경제대책 : 아베노믹스(Abenomics)는 아베 총리가 내건 경제 정책이며, 아베와 경제학을 합친 조어로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 명목 3%이상의 경제 성장 달성 등을 내걸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대담한 금융 정책(2%의 인플레이션 목표, 엔고시정, 정책 금리의 마이너스화, 무제한 양적 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대규모 공공투자(국토 강인화)), 민간 투자를 자극하는 성장전략(“일본 경제 재생·산업 경쟁력 강화 법(가칭)“제정에 의한 제조업 활성화, 법인세 인하)의 3가지를 기본 방침으로 아베는 이를 “3개의 화살“ 이라고 표현함
- 국가재정 재건을 위한 소비세 증세 : 2012년 8월10일에는 소비세 증세를 중심으로 한 사회 보장세 개혁 관련법이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체결되고 법안으로 성립되어 현재 5%의 소비세율은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에 걸쳐 높아지며, 소비세인상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으로 평가되어 일본국채 건전성을 어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15년 10%의 수준도 타국과 비교하면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닌 상황이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점이 평가 받고 있음
- 중-일 관계 갈등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 중-일 마찰 고조에 따른 경기 부진 압력은 2013년 들어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어, 갈등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매입 가격을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설정해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 이로 인해 대기업(소프트뱅크, KNT, 로손, 미즈이 물산 등)들의 에너지사업 신규 참가가 이어지고 있음

3. 사회동향

- 동일본대지진 : 2011년 3월 11일 14시46분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매그니튜드 9.0을 기록하며 일본 관측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남아있고, 지진 발생 직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동북지방은 물론 관동지방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줌
- 원전 및 방사능문제 : 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정기검사에 들어가며 안전상의 이유로 재가동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등 계속해서 원전이 정지되고 있는 상황
- 세금 및 사회 보장 개혁 : 일본사회는 고령화 소자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보장비 지원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세금 문제와 사회 보장 개혁안 논의가 시급하여졌으며, 개혁방안으로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5%에서 10%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소비세 증세로 인해 기업 코스트가 증가되어 가계 소비 감소 등으로 경기 위축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현재 사회 보장 유지를 위해서는 소비세 증세만으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

Ⅲ

연수기관 및 연수결과

① 주요 연수내용

1. 이시카와현의회 방문 간담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8. 27(수) 10:00 ~
- 장 소 : 이시카와현의회 의장 응접실
- 면 담 자
 - 전라북도의회(7명) : 강병진·이호근·김대중·김현철·양용호·이학수·최진호 의원
 - 이시카와현의회(5명) : 이나무라 타케오·요시다 오사무·마수 케이·야케다 히로아카·요네미츠 이사오 의원)

○ 주요 진행순서

- 출석자 소개(이시카와현의회, 전라북도의회)
- 이나무라 타케오 의원 환영인사
- 강병진 위원장 방문인사
- 간담(질문 및 답변)
- ※ 사전 본회의장 시찰

【이시카와현의회 개요】

- 의회의 역할 : 현의회는 현의 시책·사업의 방침 등에 관해 현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의사기관인 현의회와 집행기관인 지사는 각각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표이며,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임
- 의회의 운영 : 현의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가 있으며, 정기회의는 연4회, 보통 2월, 6월, 9월, 12월에 열리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열림

【이나무라 타게오 의원 환영인사 주요내용】

- 이시카와현은 지난 1973년부터 농업연구인력이 방문하는 등 한국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전주는 맛의 고장이지만 카나자와시도 일본의 맛의 고장으로 전주와 카나자와시는 공통점이 많고 분위기도 닮았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울어져 잘 발전되고 있음
- 짧으나마 이시카와현을 만끽하길 바라며, 다음에 전주에 방문할 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임

【강병진 위원장 방문인사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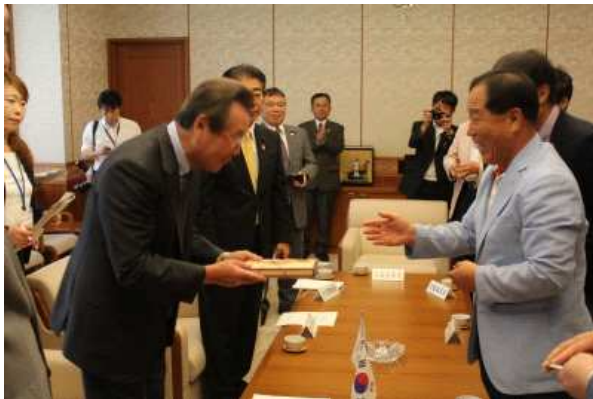
- 전라북도 산업경제위원회 국외연수 추진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번 만남을 통하여 양 의회를 더욱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
- 특히 이시카와현과 전라북도가 지형적인 여건이나 산업적인 환경이 매우 유사하여 서로의 좋은 점을 배우고, 상호 이익을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음
- 5일동안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일본의 선진농업과 산업현장을 견학하면서 우리 도에 접목가능성을 타진토록 할 것임

【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은 전통산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무형문화재 전문인력 양성 등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 지?
 - ↳ 양 도·현간 무형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제도 비교 검토
- 전주소 한지가 유명하듯이 카나자와시도 ‘후타마타’라는 전통종이가 유명함으로 매년 전람회를 개최하는 등 종이와 상호 교류가 되었으면 함
 - ↳ 최진호 의원과 이나무라 타게오 의원이 가교역할을 하되, 민·관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 문화와 전통도시인 양국 초·중고 수학여행과 관련 교류방안 검토
 - ↳ 집행부에서 별도 추진하되 의회 차원에서 협력키로 함
-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은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은 교류가 미흡함으로 양 의회가 시·군 및 민간차원의 한·일 교류를 적극 나서기로 합의
- 전주국립박물관이 전라북도와 이시카와현과의 교류를 맺게 해준 계기가 되었지만 2015년 이시카와현립박물관 재개관에 맞춰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많은 참석 요청
- 일본의 쌀관세화정책 추진상황과 농촌·농민들의 입장 등 토론



☞ 이시카와현의회 방문 간담



☞ 기념품 전달



☞ 의회 본회의장 견학

2. 사카타니농장 방문 간담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8. 27(수) 16:00 ~
- 장 소 : 사카타니농장 회의실
- 면 담 자 : 오쿠무라 대표이사

○ 주요 진행순서

- 사카타니농장의 개요 및 특징 설명 청취
- 질문 및 답변
- 농장 운영상황 및 체험현장 시찰

【사카타니농장 개요】

- 1972년 농사조합법인 사카타니농산을 설립한 후, “농업은 마음을 경작하는 산업이며, 우선 인재육성이 필수적” 이라고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신념으로 임차형 대규모농업이 종사하고 있으며, “농지의 보전, 담당자의 육성, 음식의 안정적 확보, 친환경 풍토조성을 기본으로 한 고품질 쌀 생산, 지역과 함께하는 농업” 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약 350ha 510호 고객농지를 임차 경작(쌀 250ha, 보리·과수 100ha)하며, 직원은 25명, 정년은 60세이나 계속 근무가능(현재도 7명이 정년 후 계속 근무하고 있음), 28개회사와 계약재배 출하를 하고 있어 판로에는 문제가 없음
- 무농약이 아닌 저농약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오리지널브랜드 “월드에이스” 를 상표등록한 후, 현재 계약소매점에서 판매 하고 있음
- 직접생산·판매방식 도입, 지산지소가 목표이며, 가급적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추지 않고, 지역민만을 고용 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농경지 확보위한 토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젊은 인재육성을 하면 농업기술개발로 농가를 지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 농장경영시 정부지원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
 - ↳ 쌀생산조건으로 매년 1ha당 75,000엔 지원(2013년까지는 1ha당 150,000엔 지원)받고 있으나, 3년이 지난 2018년부터는 정부지원금이 없어지며, 쌀 이외(보리, 사료용작물)의 1ha당 40,000~450,000엔 정부지원금을 받고, 채소와 과일은 정부지원금 없음
- 경작지원금 이외 RPC, 트랙터 등 시설장비 지원은 없는 지?
 - ↳ 처음 시설할 때 1회 30% 지원(20년전에는 50%까지 지원)
- 쌀 관세화정책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 지와 쌀값 가격 변동은 어떠한 지?
 - ↳ 농민입장으로서 현재 대책은 없고, 그 이유는 정부가 재정 문제가 심각해서 지원여력이 없기 때문이며, 수입쌀보다 국내쌀이 2배 비쌌
- 쌀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의향인 지?
 - ↳ 그때되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업종을 전환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듦
- 현재 농장 직원 월급은 어느 정도인 지?
 - ↳ 18세~40세까지 근속년수가 22년정도 되면 500,000~550,000엔 정도이며, 아르바이트 파트직원 일당은 8,000~12,000엔 정도임
- 6차산업이 일본에서 생겨났는데, 현재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정부지원금이 있는 지?
 - ↳ 시설을 설치할 때만 지원되고, 가공·유통과정에서 지원은 없음

- 정부에서 쌀생산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 ↳ 농경지에서 40%만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5년후에는 자율적으로 경작(정부보조금이 지원이 중단될 때)하도록 바뀔 것임
- 일본이 초창기 친환경농업으로 추진한 주요정책은 무엇인 지?
 - ↳ 근본적으로 무농약(완전 친환경농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저농약(기존의 1/3사용)을 사용하여 생산하면 수확량은 줄지 않고, 유통과정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은 없음
- 정부보조금을 경작자에게 주는 지 아니면 토지주에게 주는 지?
 - ↳ 일본도 실질적으로 경작자에게 주고 있음



☞ 사카타니농장 개요 청취



☞ 쌀 가공공장 견학



☞ 사카타니농장 유리온실 전경



☞ 사카타니농장 전경

3. 대왕 와사비농원 방문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8. 28(목) 16:00 ~
- 장 소 : 대왕 와사비농원

○ 주요 방문내용

- 지역특산품인 대왕 와사비농원 재배지 견학
- 와사비를 이용한 관광과 다양한 상품개발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생생한 현장 체험
- 친환경 수경재배지 농장을 방문을 통한 도내 접목가능성 타진

【대왕 와사비농원 개요】

- 일본 전국에서 가장 큰 친환경농원으로 와사비 재배이외에도 가공 판매도 함께 하고 있으며, 마츠모토 시내에는 직영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일본 전역에 택배를 통해 신선한 와사비 뿐만 아니라 와사비꽃, 와사비줄기를 비롯한 가공식품들도 제공하고 있으며, 농원내에서는 와사비 재배지뿐만 아니라 와사비를 이용한 식당 및 아이스크림매점, 차실, 휴게실 등도 함께 있어 편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특히, 와사비는 1급수 깨끗한 물로 수경재배하고 있어 껍 인상적임)



☞ 대왕 와사비



☞ 대왕 와사비농원 설명 청취



☞ 대왕 와사비농원 재배지 전경



☞ 대왕 와사비농원 안내도

4. KOTRAnago야무역관 방문 간담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8. 29(금) 14:00 ~
- 장 소 : KOTRAnago야무역관 회의실
- 면 담 자 : 김현태 KOTRAnago야무역관장

○ 주요 간담내용

- KOTRAnago야무역관의 현황(업체지원 및 투자동향 등) 및 한일 경제동향 파악
- 주재일본 각 지자체 사무소의 KOTRA와의 소통 및 연계현황
- 우리 도내 기업의 일본 내 투자협조 요청
- 우리 도 농산물 수출가능 여부 타진

【KOTRANA고야무역관 개요】

- 일본 중부지역 중심시인 나고야시에 소재, 토카이 3개현(아이치, 미에, 기후)과 호쿠리쿠 3개현(후쿠이, 이시카와, 토야마)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일본 전국 면적의 9%, 인구의 12%, 총생산액의 약 12%를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각종 부품 산업, 기계류 등이 발달된 일본을 대표하는 제조업 중심지역임
- 주요사업으로는 시장개척사업, 조사사업, 투자유치사업, 지사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 한국기업이 일본 진출시 사전에 KOTRA와 상담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
 - ↳ 현재 일본내 투자상담이 미진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도 상담에 참여토록 할 것이며, 전북기업의 투자에도 특별한 신경을 쓸 것임
- 전라북도가 현재 식품클러스터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 KOTRA도 일본기업 유치 등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현재 엔저 때문에 전북도내 파프리카 및 화훼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KOTRA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있는 지?
 - ↳ 특별히 검토한 방안은 없고, 엔저로 인한 생산단가가 매우 올라 앞으로 일본에 특화된 일본인이 좋아하는 분야(토마토 등)로 특화하여 상품화 추진이 필요함

- 일본 지역별로 농산물 유통시장에 한국코너를 설치 일본 바이어들에게 한국 상품을 경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어 지며, 농산물유통공사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 KOTRANA고야무역관 현황 청취



☞ 기념품 전달



☞ 현황 청취 후 기념촬영

5. 모쿠모쿠농장 방문 간담

- 방문개요
 - 일 시 : 2014. 8. 30(토) 09:00 ~
 - 장 소 : 모쿠모쿠농장 회의실
 - 면 담 자 : 마쓰나가 시게루 상무이사
- 주요 진행순서
 - 모쿠모쿠농장의 개요 및 특징 설명 청취
 - 질문 및 답변
 - 농장 운영상황 및 체험현장 시찰

【모쿠모쿠농장 개요】

- 1987년 4월 이가시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햄공장 모쿠모쿠”를 설립한 후, 1984년 “수제 비엔나 소시지체험교실”을 시작하여 1995년 7월 팩토리팜 “모쿠모쿠수제농장”을 오픈
- 가능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ha의 벼농사를 하고 있으며, 이중 30ha정도는 직영농장이고, 70ha정도는 약 70개의 지역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음
- 또한, 5ha의 밭에서는 사탕수수, 감자, 고구마, 호박, 당근 등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체험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우유가공식품 생산용 소는 30두정도 키우고 있으며, 숙박하는 사람들에게 아침 목장일 돕기와 1박2일 낙농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정직원은 150명, 파트직원(아르바이트)은 1,000여명이며, 연간 농장을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은 50만명이 넘음

【모쿠모쿠농장 특징】

- 모쿠모쿠 수제농장의 시설구조는 5개로 구분되어 있음
 - ① 제품만들기 시설 : 햄공장, 비엔나소시지 전문관, 지역맥주공장, 두부공장, 밀크공장, 빵공장, 화과자공장, 양과자공장 등
 - ② 체험학습장 운영 : 제품만들기 체험교실(비엔나소시지, 빵 등), 작은행복목장(우유짜기, 포니승마, 염소 및 양털깎기 등), 버섯 체험장 등
 - ③ 식사 장소 : 레스토랑, 바베큐하우스, 카페 등
 - ④ 숙박 및 오락시설 운영 : OKAERi빌리지(숙박시설), 미니돼지 공연장
 - ⑤ 농산물판매장 운영 : 모쿠모쿠숍, 채소직판장, 햄 및 소시지 판매장, 빵과 과자 판매장(특히, 채소직판장은 오전 7시부터 지역생산농가가 직접 갖고 와서 가격을 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15%의 수수료만 받고 있음)

- 농장은 회원을 모집하여 모쿠모쿠 수제농장의 이용료 할인, 통신판매(13억건 의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회원이 4만명이고, 가입비는 2,000엔 정도이며, 매년 회원제용 X-mas 축제 및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있음

- 동경 및 오사카의 2개 백화점에도 입점하여 판매 중임

- 모쿠모쿠농장 자체의 소규모의 풍력발전 및 태양광발전시설도 운영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에 기여하고 있음

【주요 질문 및 답변내용】

- 농업농촌이 6차산업으로 가야 하는데 크게 성공한 점은 인정되나, 수수료 15%를 받은 것이 걱정했는 지?
 - ↳ 상품판매에 참여한 지역농민들로부터 참여촉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걱정하다고 사료됨

- 농장의 시설 설치시 보조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
 - ↳ 시설 설치시 40~50%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저금리로 시설을 설치할 때 도 있음

- 농장 직원들은 어떤 신분인 지?
 - ↳ 농장규모가 커져 전문인도 있지만 대부분 농민이 많음(자기 농사도 지으면서 농장에서 근무도 함)

- 농장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모두 생산이 가능한 지?
 - ↳ 쌀은 전량 생산이 되지만 채소는 소비자가 원하는 양보다 생산량이 적음

- 큰 도시에서 이동거리 및 제품이 한정되어 있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데 다른 대형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지?
 - ↳ 소비자가 입소문이 나서 제품을 믿고 사기 때문에 가격에 다소 비싸더라도 구매하고 있음

-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무농약인 지, 저농약인 지?
 - ↳ 무농약은 아니고, 저농약으로 생산되지만 소비자들이 믿고 판매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

- 농장에서 판매하고 남은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 ↳ 팔고 남은 제품은 농가가 다시 가져가 타 시장에서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하고 있음



☞ 모쿠모쿠농장 현황 청취



☞ 모쿠모쿠농장의 사무실 전경



☞ 모쿠모쿠농장의 안내도



☞ 채소직판장 전경



☞ 미니돼지 공연장 전경



☞ 빵공장 전경



☞ 제품만들기 체험장 전경



☞ 맥주공장 전경

2 시사점

- 친환경농업은 무농약에서 저농약까지 확대하되 유기농 중심으로 전환하여 생산하는 농민이나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향후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카타니농장측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은 대만이 대중국 고액 소득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우수 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대만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하는 바, 우리 도 또한 대중국 고액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우수 농산물을 생산판매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연수성과

- 민선6기 삼각농정의 핵심이 “제값 받는 농업” 인데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야 할 것이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 바, 향후 도 조직개편, 예산심의회 일본의 연수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
- 이시카와현의회측에서 전라북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 민간부분 교류를 확대하는데 양의회가 역할을 하기로 제의해 왔는 바, 이번 방문을 토대로 기초자치단체와 민간부분 교류가 확대되는 기틀 마련
특히, 양 도·현간 수학여행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 협조 의뢰할 계획
- 우리 도의 원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유통시장의 경매인이 한국 농산물을 경매에 참여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KOTRA나고야무역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 연수방문 결과를 전달하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계획

IV

연수후기

농업의 선진 경영혁신 및 다변화로 경쟁력을 키운다.

강병진 산업경제위원장

일본 국외연수에 대한 설레임과 열정을 가지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 일행은 짧으나마 5일동안 일본의 도야마현, 나가노현, 미에현 등 일본의 선진농업 현장을 방문 직접 현지 농업종사자의 설명과 질문 답변을 통해 일본의 농촌문화와 농촌관광을 몸소 체험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먼저 도착한 사카타니농장은 도야마현 난토시에 위치하여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신념으로 약 350ha 510호 고객농지를 임차 경작을 하고 있는 임차형 대규모농장으로, 직접생산·판매방식으로 지산지소(우리의 신토불이와 유사한 용어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한다” 는 뜻)가 목표이며, 가급적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여 생산단가를 낮추지 않고, 지역민만을 고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환원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행이 감명 깊게 본 것은 온실에서 감나무나 복숭아나무를 직접 땅에다 심지 않고,



이동식 포트에 심어 수확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점은 우리 도가 도입해 봄도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농가보조금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도 2018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어 이 농장도 그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한다.



또한, 나가노현 아즈노미시에 위치한 대왕 와사비농원은 일본 최대 규모로써 연간 12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농장내 솟아나는 광천수는 수온이 추울 때나 더울 때 12도로 일정하여 연간 수확이 가능하지만 와사비가

직사광선에 약하여 4월부터 9월까지의 인삼밭처럼 빗가림 차광막을 설치하여 재배하고 있다.

이곳 농원은 와사비(고추냉이) 재배 외에도 와사비를 이용한 식당 및 아이스크림 매점, 차실, 휴게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풍부하고, 깨끗한 수자원을 이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고 양성하는 등 경쟁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끝으로 나고야에서 서남쪽으로 2시간 거리 미에현 이가시에 위치한 모쿠모쿠농장을 방문하였다. 이곳 농장은 연간방문객이 50만명, 6차산업¹⁾의 발상지로서 테마파크형식으로 운영(자연학습장+가족공원+놀이공원)하고 있으며, 지역 축산농가, 농협, 종업원이 출자하여 공동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채소직판장으로 주위의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이력제를 통한 직접 가격도 책정하고 판매하지만



농장에서는 15%의 수수료만 받고 있었으며, 팔고 남은 농산물을 생산자가 다시 가져가 재판매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농업의 침체를 막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쏟아 냈지만 일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 등 단순 댐질식 정책으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는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번 연수에서 일본과 유사한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좀 더 농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수확으로 남게 되었다.

1) 도쿄대학 이마무라 나라오미 명예교수가 1996년에 처음 내놓은 것으로 6차산업에는 제1차산업인 농림수산업, 제2차산업인 식품가공과 제3차산업인 유통, 판매가 포함되며, 1차 + 2차 + 3차 = 6차산업, 1차 × 2차 × 3차 역시 6차산업이라는 기상천외한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명사다.